



지 상 에 서 들 을 수 있 는 가 장 신 비 로 운 목 소 리

ANGEL VOICES LIBERA

Welcome to our Libera concert!

It is now 5 years since we first came to South Korea. The spring visit in 2005 was the first time we had ever undertaken a concert tour on such a scale, and some of the boys had never been on a plane before! Well 5 years on, the current group of boys are now regularly travelling all over the world, as the 'Libera' music seems ever to increase in popularity. Last year we flew straight from our concerts in South East Asia all the way across to Los Angeles, and because we crossed the dateline, we ended up having two Easter Days! But with all our exciting new travels, we are always grateful for the faith that our fans invested in 'Libera' in the early days and for the wonderful support which you continue to give us.

In our concert we are singing many of the popular Libera songs including some of our very first compositions, like 'Sanctus', 'Libera' and 'Salva Me'; alongside more recent pieces like 'Far Away' and 'You were there'. But you will also hear for the very first time in a public performance some of our newest music, which is included on the brand new 'Libera' album 'Peace'.

As always you will hear new boys singing songs which, from the recordings, you may have associated with other soloists. It is in the nature of a boys group that soloists will change, so we hope you enjoy the new interpretations. If there is a sadness that the boys do not continue to sing their solo parts, there is also a joy that a group like ours can continue to benefit from their talents. So tonight you will find amongst our musicians, and amongst our sound and stage crew, boys who, five years ago, would have been wearing their white robes in the middle of the stage. Now they help produce and foster the new talent. So it is like a gigantic family.

We hope you like the sounds our family makes!



리베라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봄 이루어졌던 투어는 저희로서 그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스케일이었고, 저희 중에는 그전까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첫 내한 이후 5년이 지나 '리베라' 음악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요즘, 합창단 소년들은 이제 전세계 투어공연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동남아시아에서 공연을 마치고 바로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야만 했던 투어 일정 때문에 두 번의 부활절을 이틀 연달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처럼 신나고 새로운 여행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리베라'를 믿고 끊임없이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덕분임을 알고 있으며, 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초기 작품인 'Sanctus', 'Libera', 'Salva Me'를 포함한 유명한 리베라 음악 외에도 최근에 작곡된 'Far Away' 와 'You were there' 등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나온 리베라 앨범 'Peace'에 담겨있는 작품 중 몇 곡은 오늘 공연에서 일반 관객 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공연에서 앨범에 녹음된 목소리의 솔로리스트들과는 다른 소년들이 노래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실 겁니다. 소년합창단의 특성상 솔로리스트가 변경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여러분께서 새로운 해석도 즐겁게 관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년들이 예전에 부르던 솔로 파트를 번성하면서 더 이상 부르지 못 하게 되는 데 따르는 슬픔도 있지만, 저희와 같은 그룹은 노래하는 일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년들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쁨도 있습니다. 5년 전, 하얀 가운을 입고 무대 위에 서 있던 친구들이 이제는 음향과 무대 스태프, 뮤지션 등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밤, 여러분께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준비한 오늘 공연,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1. Adoramus
2. Libera
3. Time
4. Sanctus
5. Sanctissima
6. Ave verum
7. Far away
8. Salva me
9. Agnus Dei
10. Exultate

(INTERMISSION)

11. Mystarium
12. Orinoco flow
13. The fountain
14. How can I keep from singing
15. When a knight won his spurs
16. Love and mercy
17. Secret
18. Stay with me
19. Deep peace
20. How shall I sing that majesty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All forms of recording, video filming, photography,
use of mobile phone cameras etc are strictly prohibited.



1. 찬미하여라 스테판
2. 리베라 스테판, 알피
3. 타임 벤
4. 기록하시도다 (스테판, 알피, 갈프)
5. 가장 거룩한 여성(성모) 벤
6. 기록하신 성체 폴린, (스테판)
7. 저 멀리 비나벤, 갈프, 카타리나
8. 나를 구원하소서 스테판
9. 주님의 어린 양 알렉산더
10. 즐거워하라 비나벤

(휴식)

11. 신비 스테판, 알피
12. 오리노코 강 스테판
13. 샘물 갈프, 벤
14. 제가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미
15. 기사가 공훈을 세울 때 스테판
16. 사랑과 용서 비나벤, 알렉산더, 폴레디
17. 비밀 비나벤
18. 나와 함께 하소서 다나엘, 매튜
19. 깊은 평화 스테판
20. 주의 위엄을 어떻게 찬양할까 스테판, 제이콥

•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내에서의 캠코더, 카메라와 녹음기, 휴대폰카메라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THE MUSIC OF LIBERA

Libera is true to the meaning of its Latin title, 'Free', and crosses many musical boundaries. With original repertoire, innovative textures and inventive arrangements this unique group brings an imaginative new perspective to the landscape of vocal music.

The core of the sound is built around the voices of the young singers with their clarity, enthusiasm and excitement - the haunting yet vibrant sound of the treble voice that has long been a feature of choral music, particularly in the church.

Indeed, the defining inspiration for Libera sprang from the ancient music of the cathedrals and monasteries - from the earliest form of choral music - plainsong. The boys' robes of course retain a visual continuation of that history, and quite closely copy what the boy monks wore when they sang and were schooled in medieval monasteries. Libera mix the traditional chants with contemporary instrumentation and arrangement. Hence songs like 'Salva me' and 'Libera' reflect the shapes and mood of the old plainchant whilst combining it with new lyrics and harmonies. In fact, the song 'Libera' was the first to be written for the group. It uses a single line of plainsong with many overlapping tunes and harmony, which encompass the full range of the boys' voices.

Some songs are arrangements of well-known classical works. Although the originals could not be bettered, some lend themselves to the uplifting sound and harmonies of the boys' treble voices. The famous 'Canon' by Pachelbel, for instance, provides the basis for 'Sanctus' and an opportunity for some of the highest treble n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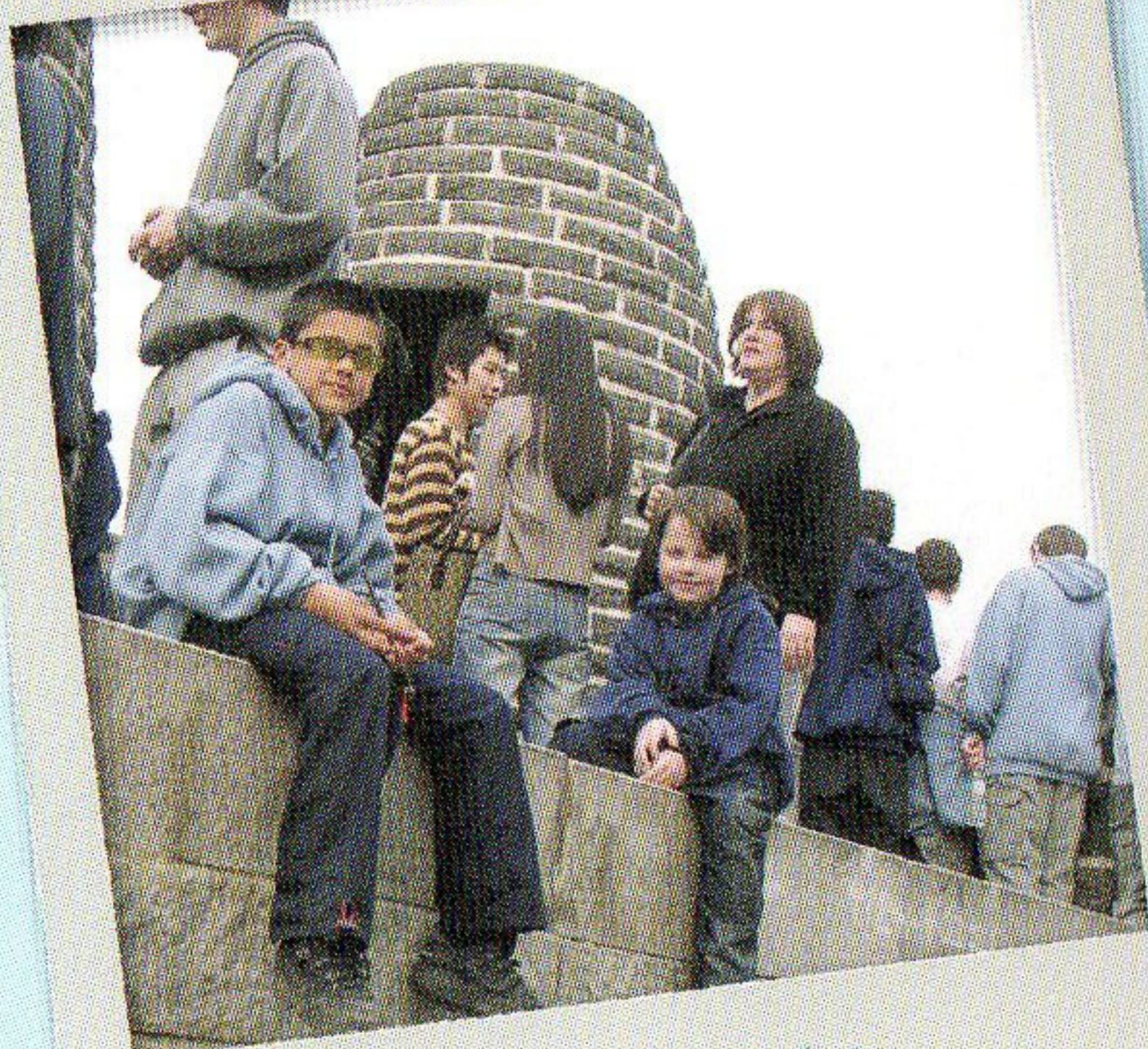
Libera also embraces the songs of other contemporary artists, which suit the boys' voices - most especially in the music of Enya with 'Orinoco Flow', and from Brian Wilson of the Beachboys, 'Love and Mercy'.

리베라의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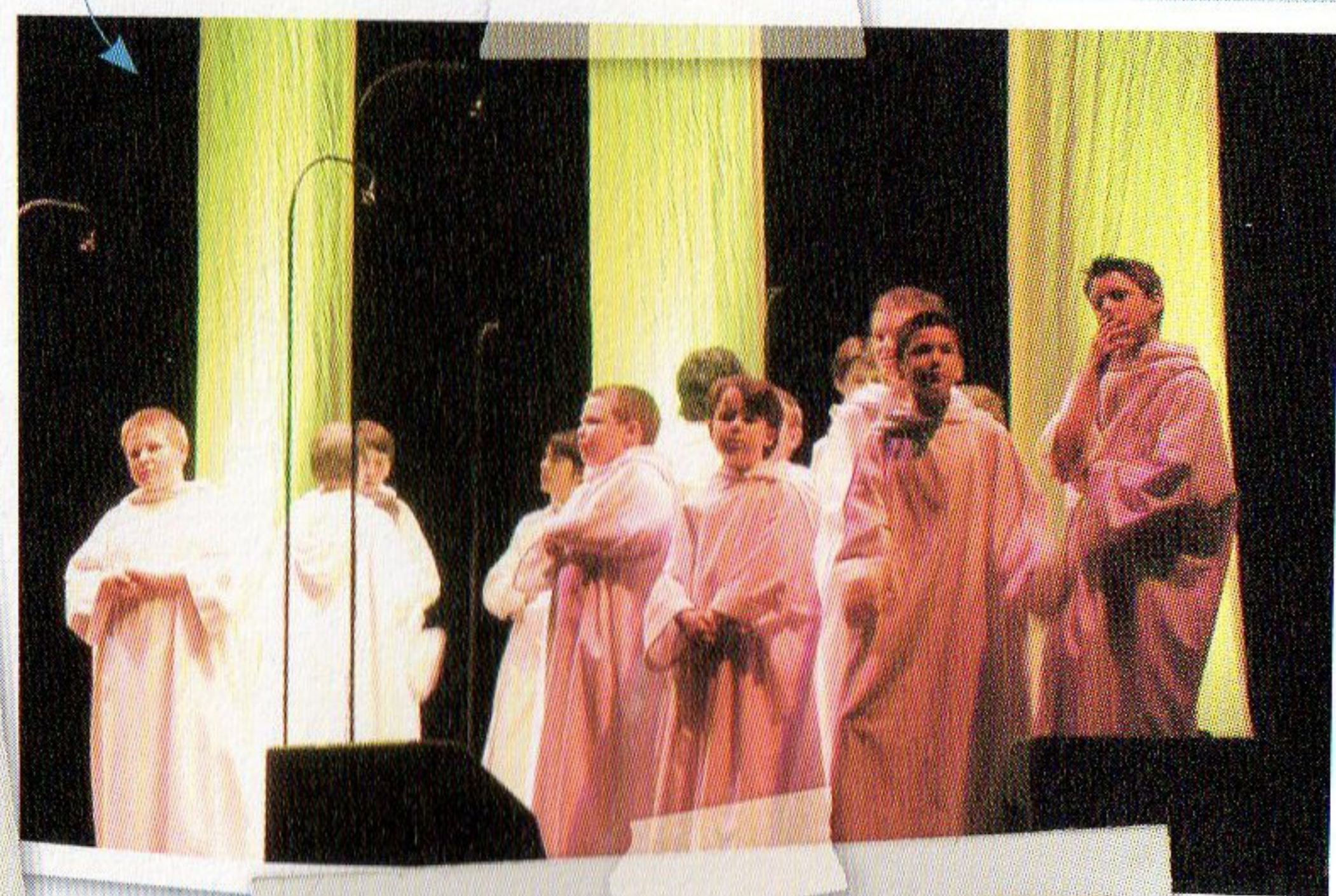
리베라는 '자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라틴어에 걸맞게 음악적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이 그룹은 자체 작곡한 레퍼토리, 혁신적인 색채와 창의적인 편곡으로 보컬 음악 세계에 참신한 색깔을 더하고 있다. 리베라 합창단의 핵심적인 소리는 소년 단원들의 깨끗한 음성, 그리고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의 아름다운 음성은 특히 수세기 전부터 교회의 합창 음악을 특징지어 온 요소이기도 하다. 리베라는 고대 음악 중에서도 성당과 수도원에서 부르던 합창 음악의 가장 초기 형태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소년들이 입는 가운 역시 그 역사를 시각적으로 반영하며 실제로 중세 수도원에서 공부하던 어린 수도승들이 노래를 부를 때 입던 옷과도 매우 흡사하다. 리베라는 전통적인 곡들을 현대악기, 그리고 편곡과 함께 결합시킨다. 따라서 'Salva me,' 'Libera'와 같은 곡들은 수세기 전 작품의 형태와 분위기를 새로운 가사와 화음과 통합시킨다. 'Libera'라는 작품은 이 합창단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첫 작품이기도 하다. 이 곡은 평성가(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성가)의 한 줄을 화음과 여러 선율을 겹쳐 표현하여 소년들의 가창력을 완벽하게 뽑아낸다. 어떤 작품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클래식 곡들을 편곡한 것들이다. 원곡이 더 이상 좋아지기도 힘들지만, 이 중 몇 곡들은 소년들의 희망적인 음성과 화음의 덕을 보는 것도 사실이다. 파헬벨의 '개논'의 경우 'Sanctus'의 바탕이 되며 단원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음을 낼 기회도 마련해준다. 리베라는 또한 단원들의 목소리와 잘 어울리는 현대 아티스트들의 곡, 특히 엔야의 'Orinoco Flow,' 비치 보이즈의 브라이언 윌슨의 'Love and Mercy'도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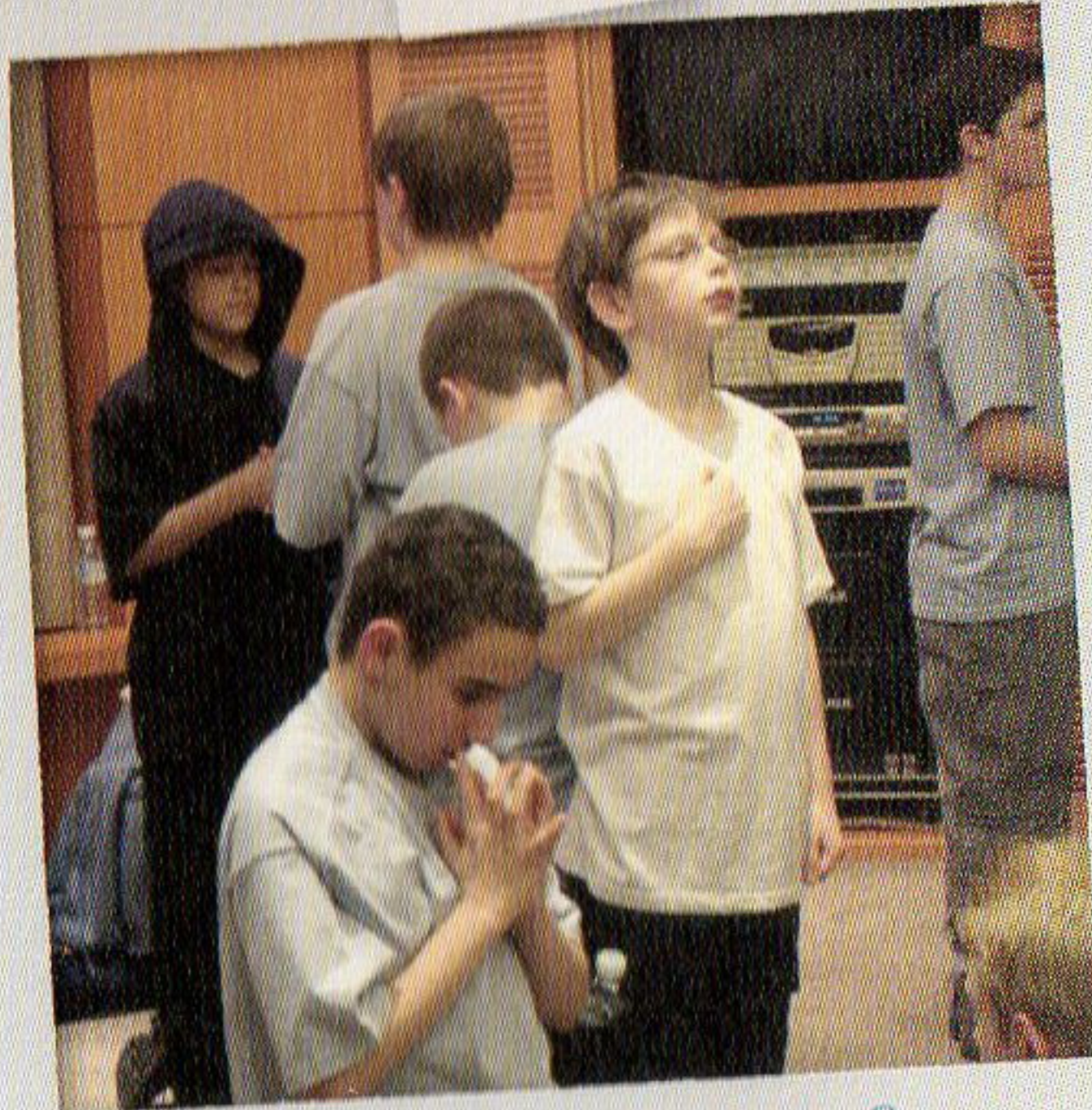
2005 KOREA Tour



남산에서



의상까지 모두 차려입으니 저희 멋있죠?



공연을 준비하며 리허설 룸에서 '이제 곧 여러분들을 만나요!'



모두 함께 단체사진 촬영!

낙트인항을 바라보니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금강대를 물어보니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폴짝 폴짝 친구들과의 신나는 줄넘기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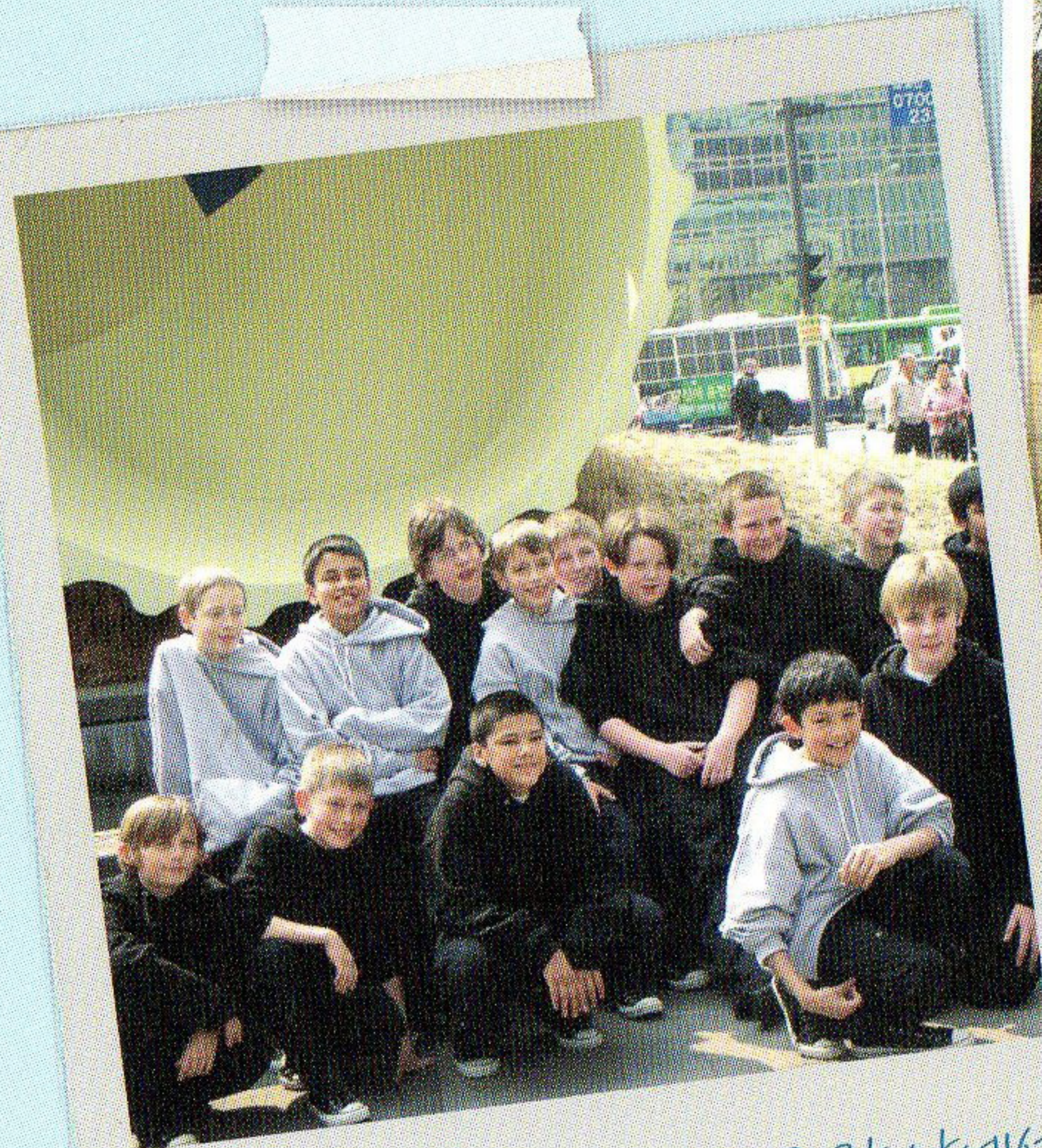


이리 오너라~ 제법 잘 어울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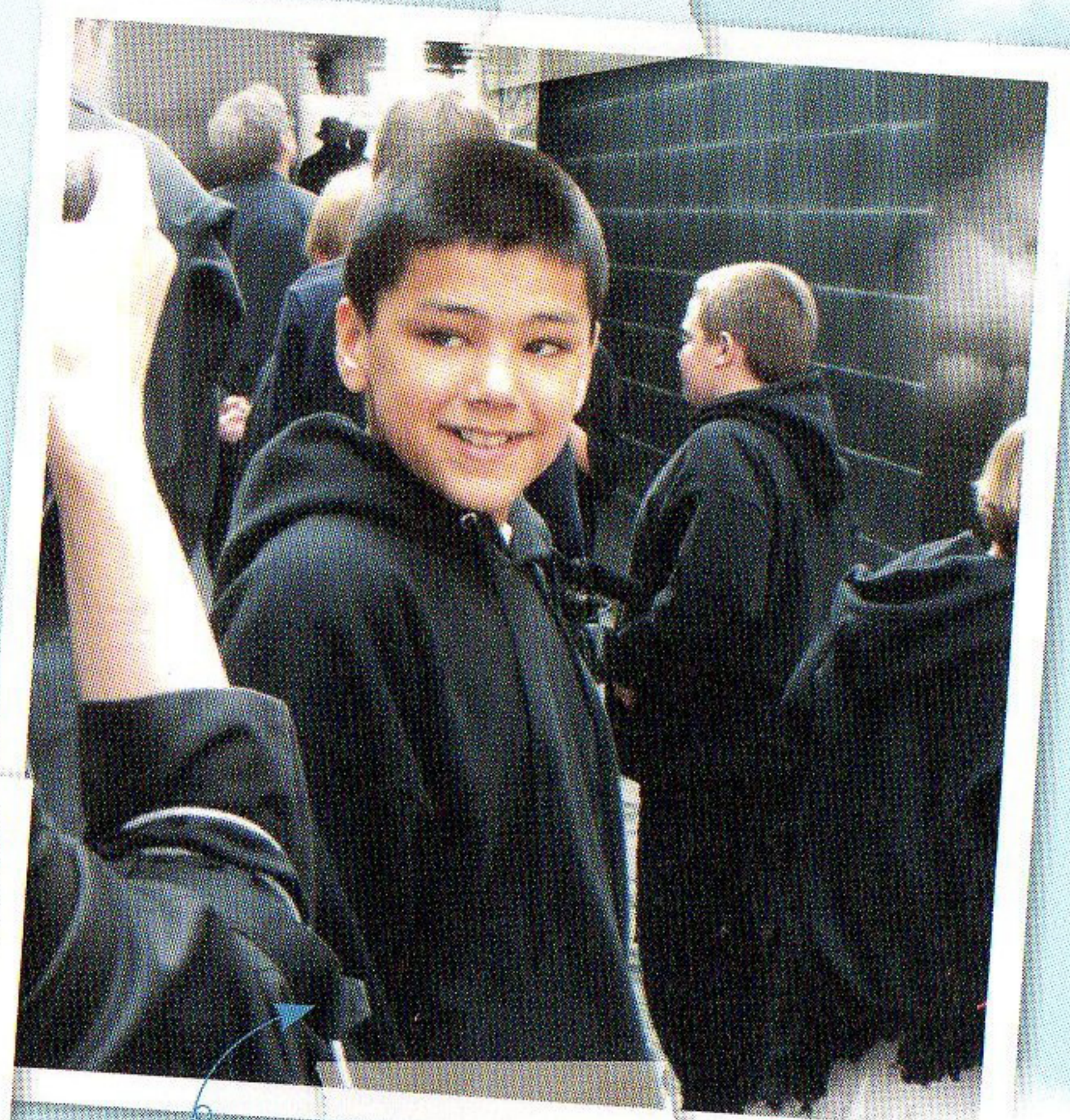


2007 KOREA Tour

가쁜 길을 멈추고...
용인민속촌에서



따뜻한 오후, 청계천 소리광장 앞에서



웃어요~호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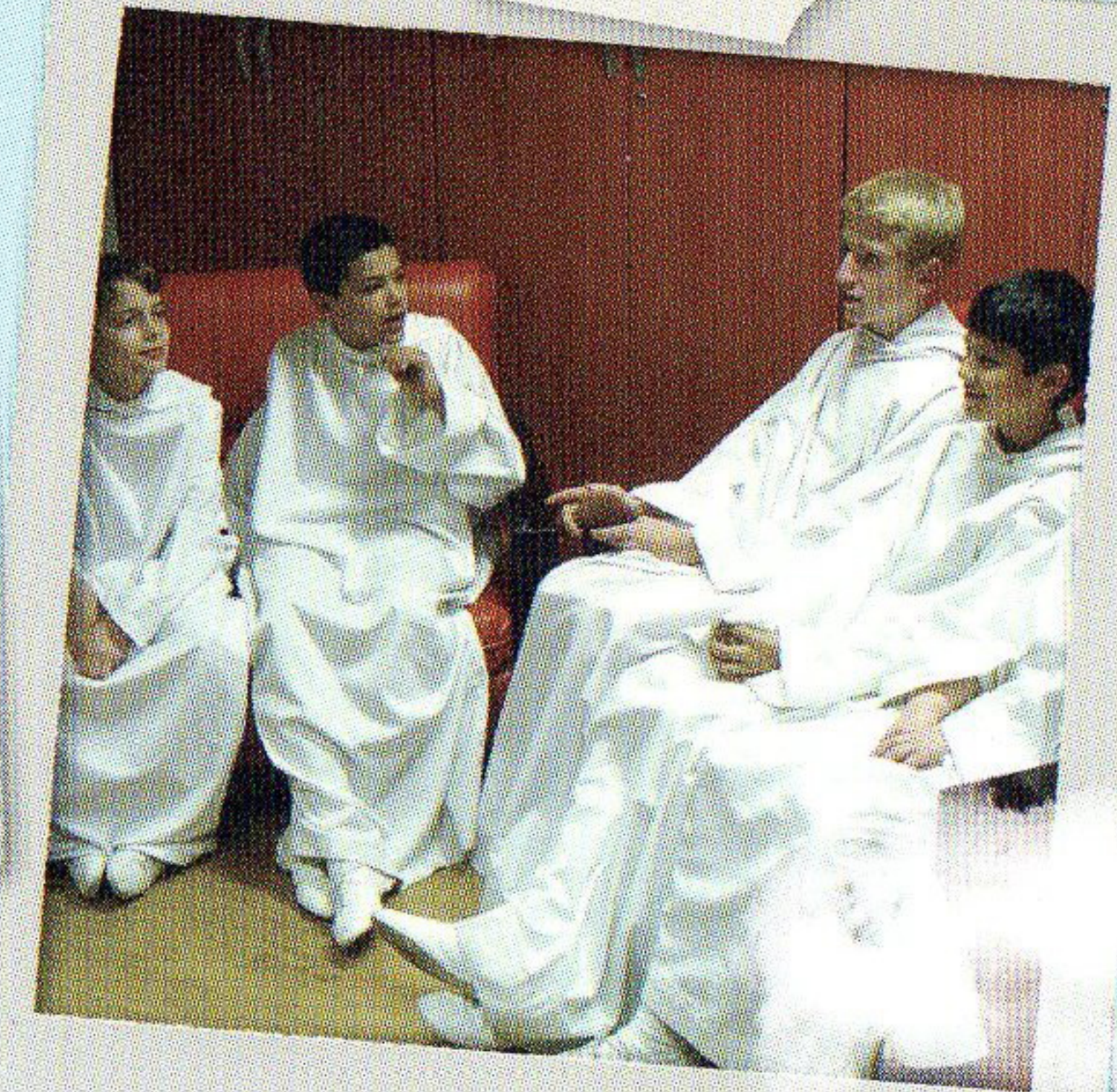
청계천에서
즐거워 할때



남산에서 기념치~



미니벤 스마일~



공연을 준비하며 리허설 룸에서



청계천에서 즐거워 할때

MEMBERS OF LIBERA



HENRY BARRINGTON
1999년 5월 11일



JONATHAN BARRINGTON
1995년 1월 31일



TIARNAN BRANSON
1996년 12월 17일



LUKE COLLINS
1998년 12월 28일



LIAM CONNERY
1995년 12월 4일



KAVANA CROSSLEY
1998년 12월 1일



JAKOB DE MENEZES-WOOD
1997년 5월 25일



DANIEL FONTANNAZ
1995년 12월 31일



FREDERICK INGLES
2000년 7월 30일



STEFAN LEADBEATER
1998년 3월 20일



ALEXANDER LEGGETT
1996년 7월 23일



SAMUEL LEGGETT
1994년 10월 12일

MEMBERS OF LIBERA



JOSHUA MADINE
1994년 10월 26일



FLYNN MARKS
1999년 4월 8일



JAMES MORDAUNT
1999년 12월 9일



SAMUEL MORIARTY
1998년 1월 6일



CASSIUS O'CONNELL-WHITE
2001년 6월 15일



BENEDICT PHILIPP
1996년 1월 6일



MATTHEW RANGEL-ALVARES
1999년 6월 2일



CARLOS RODRIGUEZ VILLEGAS
1998년 12월 8일



RALPH SKAN
1998년 8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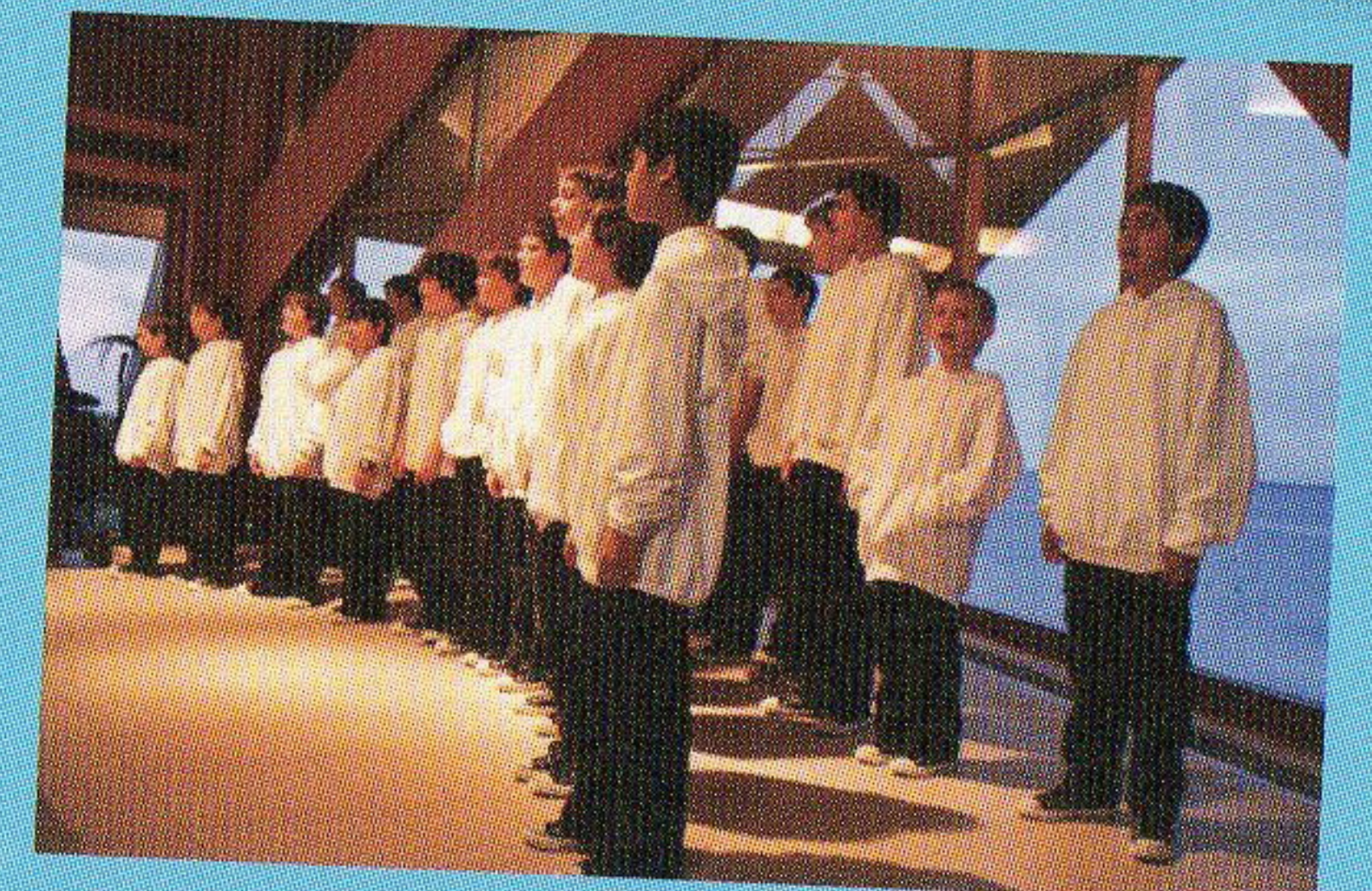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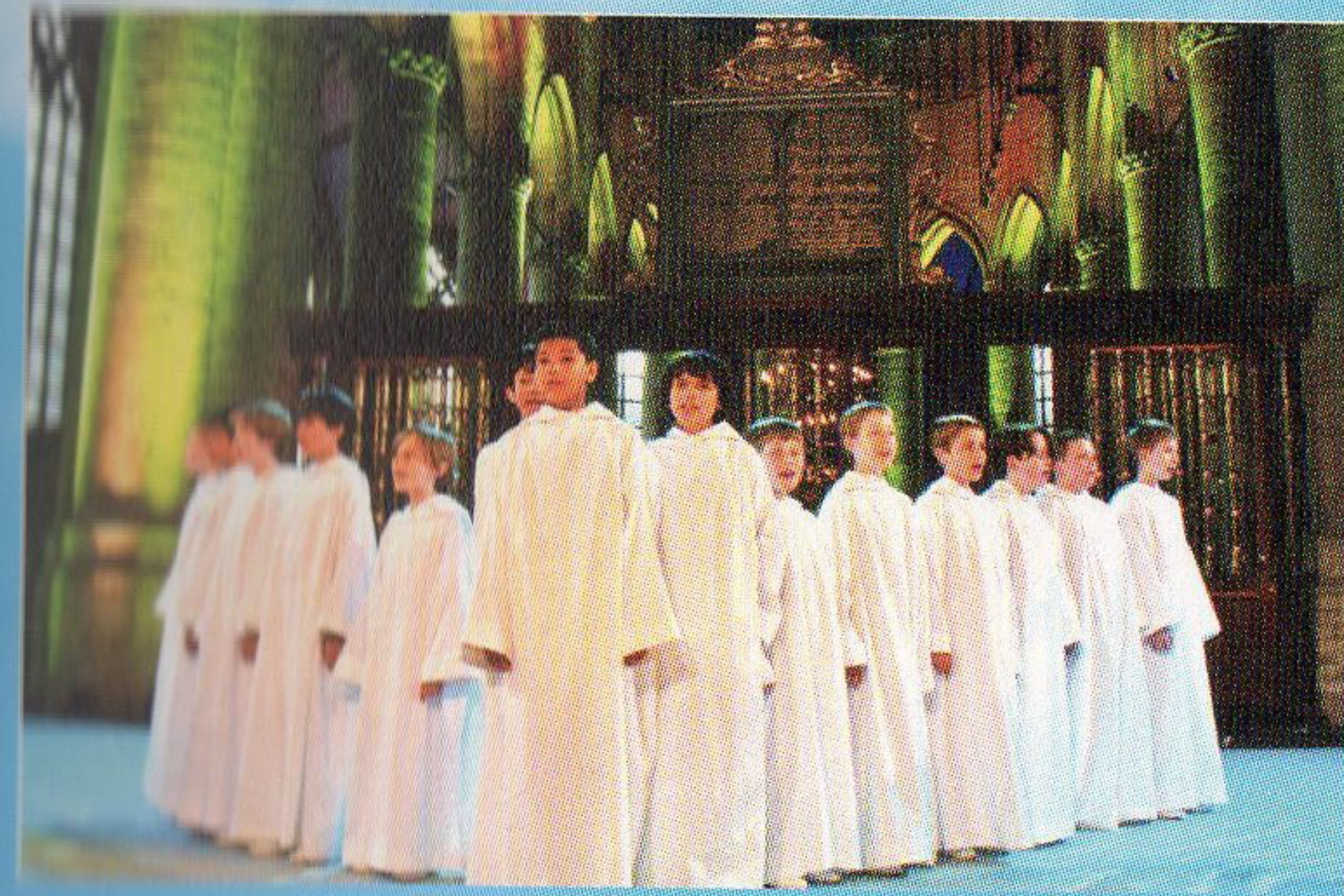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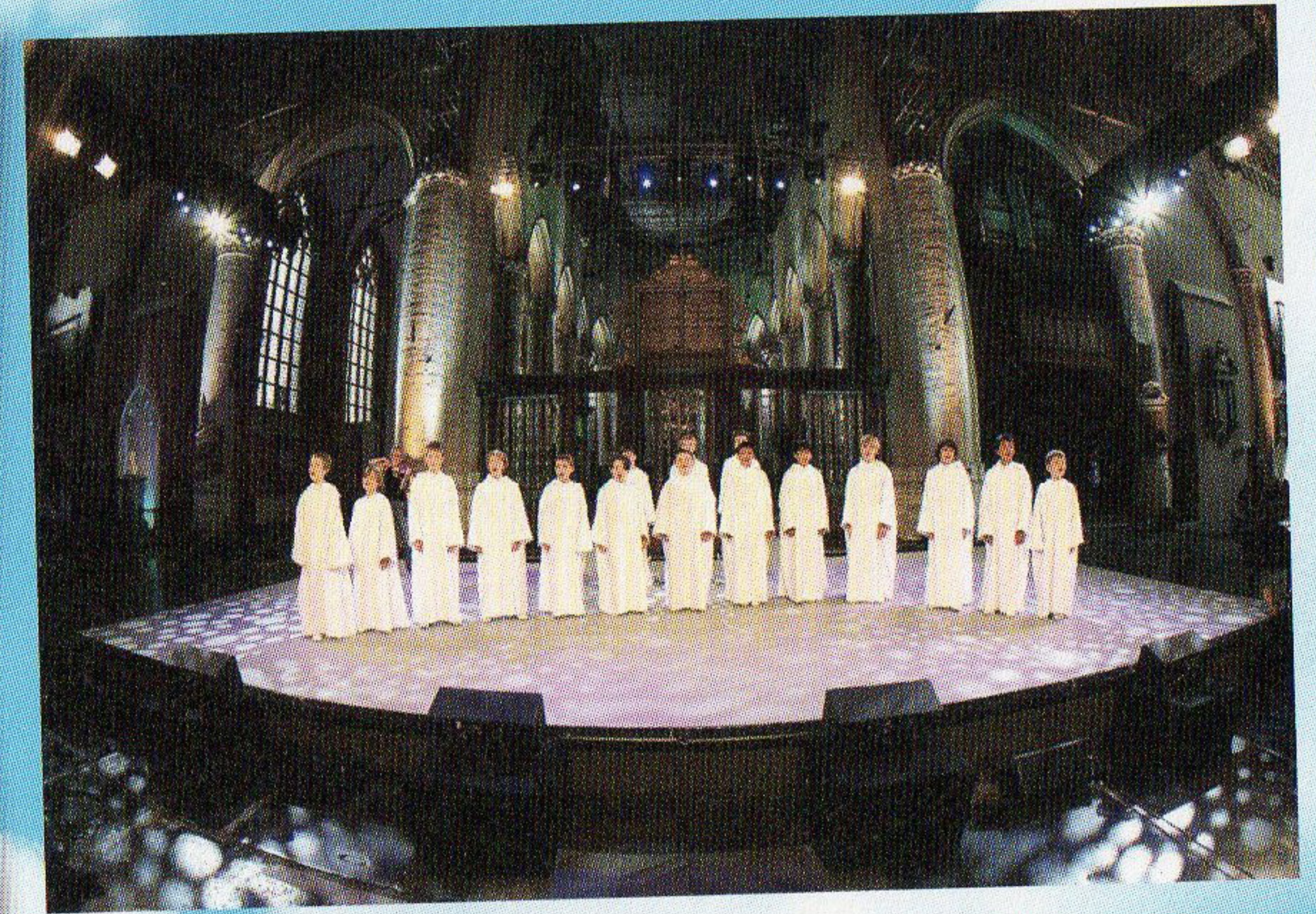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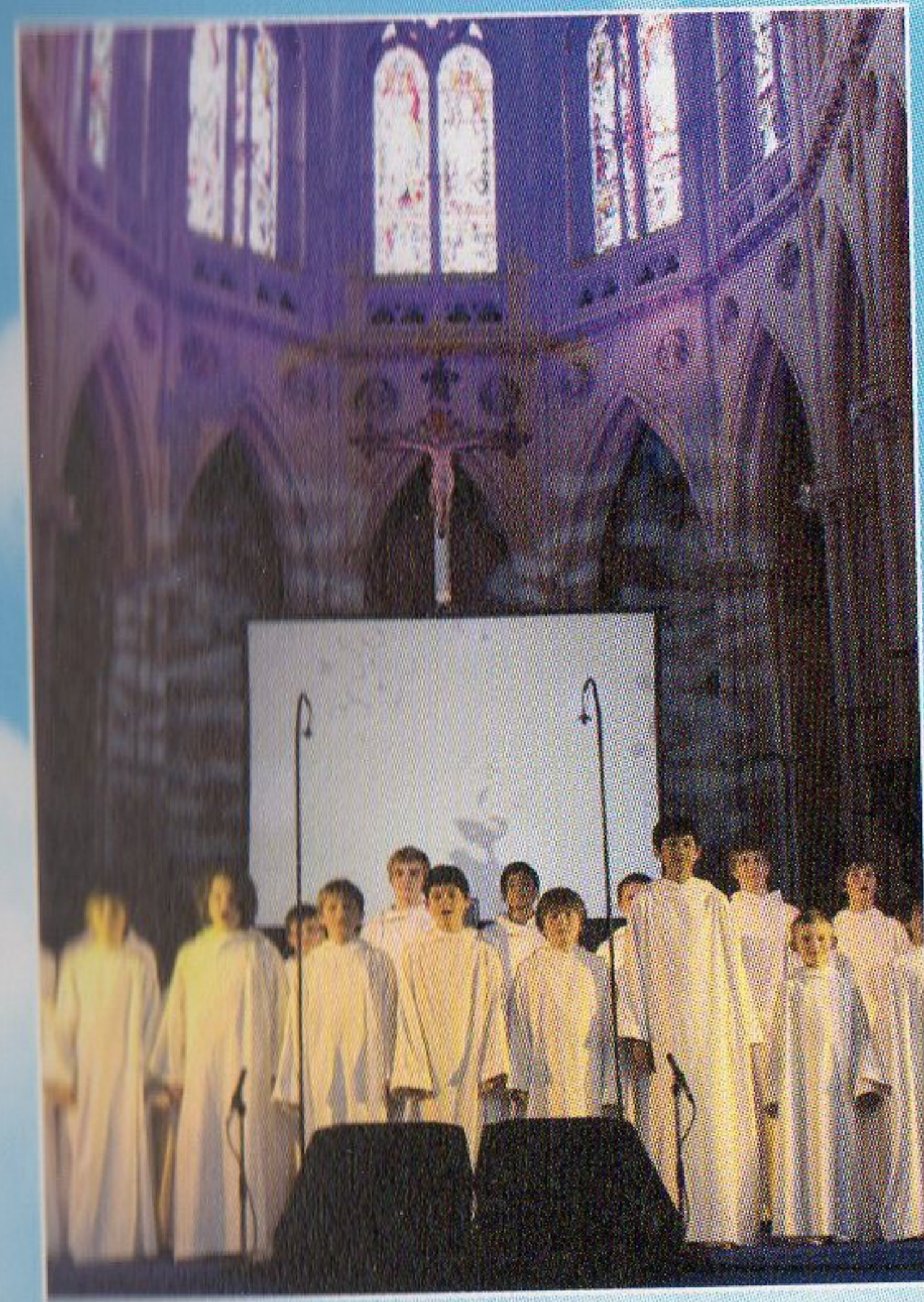
ALFREDO SMART
1998년 8월 24일



JAMES THREADGILL
1997년 1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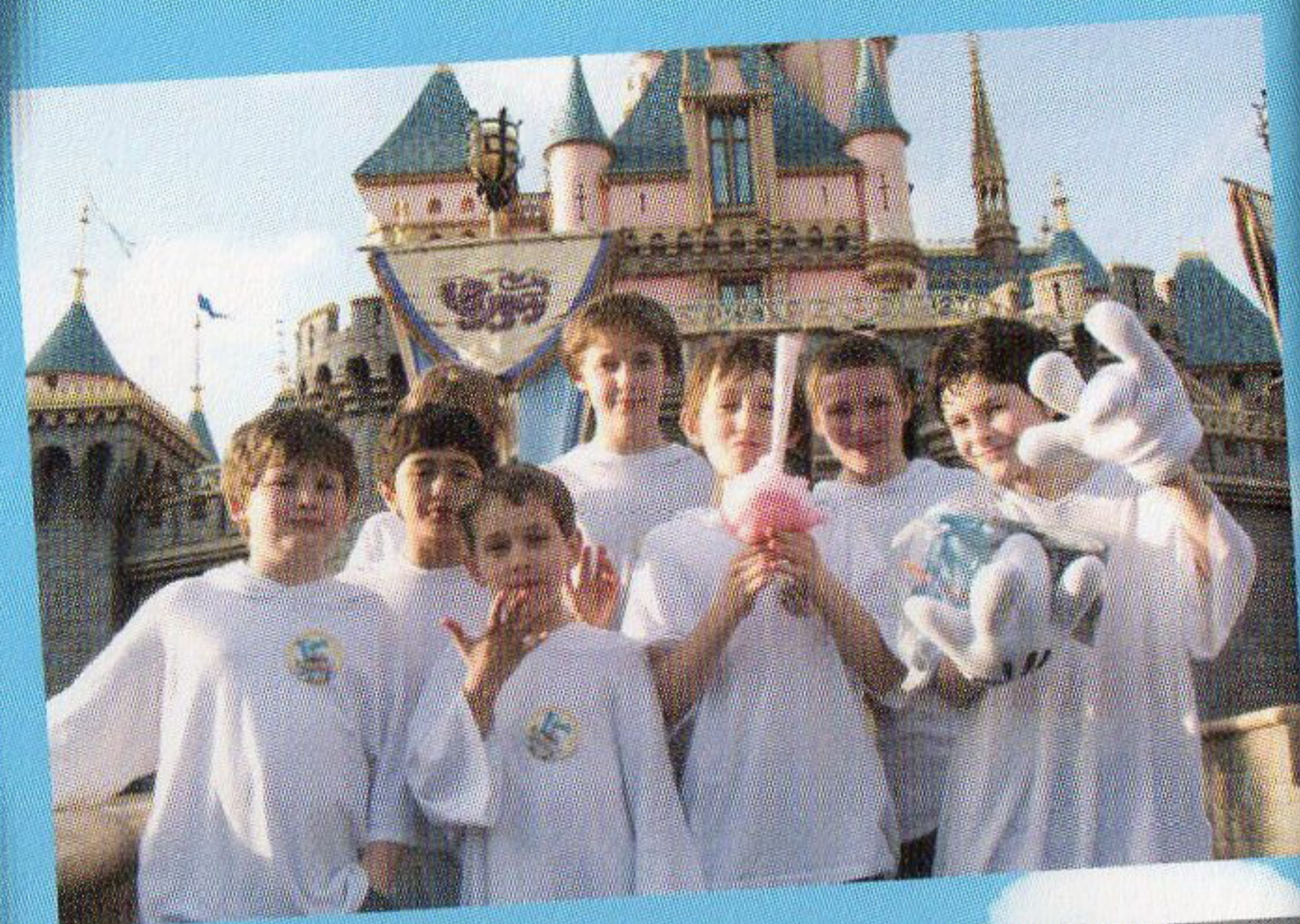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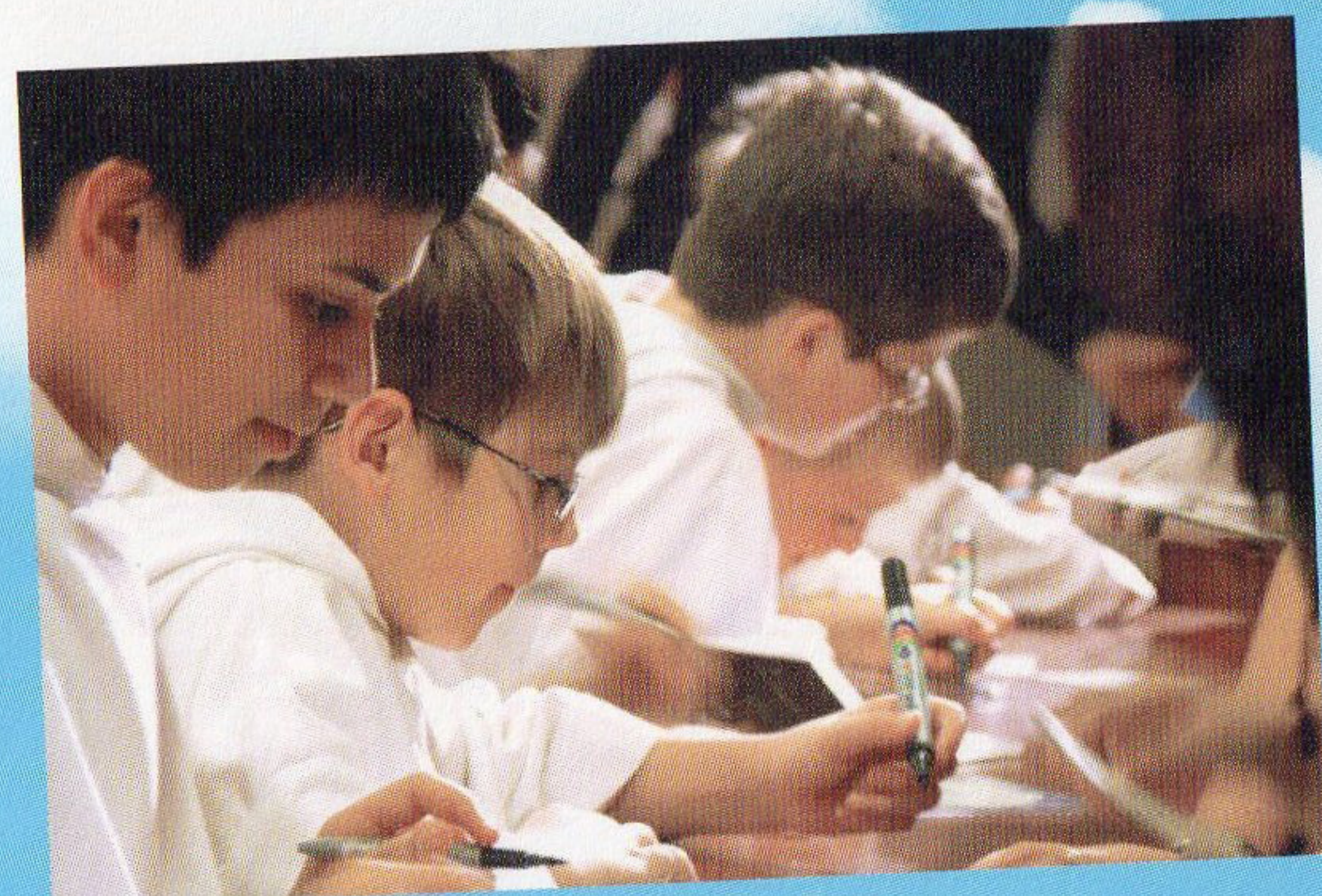


LIBERA WORLD TOUR





**LIBERA
WORLD
TOUR**



PROGRAM NOTE

1 Adoramus

2004년 음반 <Free>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전자악기의 사운드와 비트를 바탕으로 테크노적인 느낌을 살짝 더한 곡이다. 천상의 화음을 벅찬 분위기로 노래하는 곡으로, 리베라 합창단의 연주회에 첫 곡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제목인 'Adoramus'는 가톨릭 기도문인 영광송에 나오는 'Adramus Te(주님을 흠송하나이다)'에서 나오는 단어로, '사랑하다'라는 뜻이다.

2 Libera

2000년 리베라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창단하면서 나온 음반인 <LIBERA>의 대표곡이다. 리베라 합창단의 이름이 된 라틴어 'Libera'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미사곡인 레퀴엠에 나오는 'Libera me, Domnine(나를 구원하소서, 주여)'에서 따온 것으로 원뜻은 '구원하다', '자유' 등을 의미한다. 리베라 합창단이 새롭게 재정비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곡이다. 곡 말미에 울려 퍼지는 '리베라'라는 가사는 이 합창단의 자기 확신을 표현하는 듯한 벅찬 느낌을 전해주고 있다.

3 Time

올해 새롭게 발매된 음반 <Peace>에 수록된 신곡으로, 특히 음반 발매 직전 뮤직 비디오로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 여겨진다. 리베라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프 라이즈만의 곡으로, 호소력 있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선율의 아름다움은 리베라만의 아름다움을 남김없이 펼쳐 보이고 있다.

4 Sanctus

2006년 <Angel Voices>을 비롯한 여러 리베라 합창단의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아마도 리베라 합창단이 부른 곡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노래일 것이다. 국내 CF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파헬렐의 캐논을 새롭게 편곡하여 가톨릭 미사문인 'Sanctus(거룩하시도다)'의 제목을 붙인 곡으로, 리베라 합창단의 장기인 고음을 한껏 활용하고 있다. 합창곡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기악곡으로도 파헬렐 캐논의 편곡은 많았지만 리베라 합창단만큼 이 곡에 대한 인상을 깊게 지어준 경우는 드물다.

5 Sanctissima

리베라의 최근 음반 <Peace>의 첫 곡이다. '상티시마'(Sanctissima)'는 '가장 거룩한 여성', 즉 성모를 일컫는 라틴어이다. 라틴어 성가의 가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천상의 목소리라고 일컬어지는 리베라 합창단만의 장점을 살린 순수한 선율을 새롭게 노래한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오신 우리 성모 마리아, 사랑하오신 우리 어머니, 우리 위해 비오소서, 성모여."

6 Ave verum

2004년 음반 <Free>에 수록된 곡으로, 성체를 찬미하는 라틴어 기도문을 가사로 한 작품이다. 중세풍의 선율을 모던한 리듬과 사운드로 편곡한 것으로, 중세 화성과 현대 화성이 교차되면서 리베라 합창단만의 독특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반주가 인상적인 곡이기도 하다.



PROGRAM NOTE

7 Far away

2006년 음반 <Angel Voices>의 첫 곡으로, 음반발매 직전 뮤직비디오로 소개될 정도로 대표적인 곡이다. 보이소프라노의 독창으로 시작되며, 합창단의 풍성한 화음이 뒤를 잇는다. 음반발표 당시 이 곡의 솔리스트 마이클 혼케슬의 어리지만 깊이 있는 음악성이 큰 화제를 모았다.

8 Salva me

2006년 음반 <Angel Voices>에 수록된 곡으로, 제목인 'Salva me'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후렴구에 'Salva me'가 울려 퍼질 때의 가슴 벅찬 느낌이 특히 인상적이다. 가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어둠에서부터 나를 멀리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9 Agnus Dei

2000년 음반인 <LIBERA>에 수록된 곡으로, 리베라 합창단의 초기 노래 중 한 곡이다. 제목인 'Agnus Dei'는 가톨릭 미사 중에 나오는 기도문으로,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다. '주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어린 양,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10 Exultate

2010년 최근 음반인 <Peace> 중의 한 곡이다. 중세 영국 민요를 연상시키는 선율이 노래되기 시작하며, 경쾌한 이 선율이 계속 반복되면서 흥겨운 중세 무곡 풍으로 발전해나간다. '엑솔라테(Exultate)'는 '즐거워하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리베라 합창단의 본령이 영국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곡이다.



11 Mysterium

2000년 리베라 합창단의 초기 음반인 <LIBERA>에 수록된 곡이다. 리베라 합창단으로서 는 드물게 적극적인 전자음향의 사용으로 신비한 느낌을 물씬 전해준다. 'Mysterium'은 신비라는 뜻으로, 성탄절 시기의 가톨릭 아침기도문인 'O Magnum Mysterium'에서 따온 것이다.

12 Orinoco flow

엔아의 히트곡 'Orinoco Flow'를 리베라 합창단만의 감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노래이다. 2008년 음반인 <New Dawn>에 수록되어 있다. 엔아와 리베라 합창단의 노래의 유사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리베라는 이러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소년 합창단만이 표현할 수 있는 신비로운 느낌을 극적으로 덧붙이고 있다. 원곡을 넘어서는 리베라 합창단의 표현력이 돋보이는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13 The fountain

2010년 올해 발매된 음반 <Peace>의 마지막 곡이다. 쇼팽의 24곡의 전주곡 작품번호 28번 중 스무 번째 곡인 c단조의 선율을 노래로 편곡하였다. 베리 매닐로우의 노래 "Could It Be Magic"의 도입부로 사용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선율이기도 하다. 리베라가 이 곡을 사용하는 방식은 쇼팽의 원곡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다. 곡의 선율을 경건한 코랄처럼 노래하며, 이 주제가 반복되면서 그 위로 아름다운 소년의 독창이 이어진다. '샘물(The Fountain)'이라는 제목 그대로 샘솟듯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율이 매력적인 곡이다.

PROGRAM NOTE

14 How can I keep from singing

2008년 음반 <Eternal> 중 한 곡으로, 널리 불리워지는 찬송가를 리베라만의 감성으로 새롭게 편곡한 노래이다. 차분한 가운데 익숙한 선율을 노래하면서 곡이 진행되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화음이 무척 아름답다. 국내에서는 엘트웰, 에버랜드, 포스코 등 여러 CF 음악으로 사용될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노래 중 하나로 손꼽히는 노래이기도 하다.

15 When a knight won his spurs

2004년 음반 <Free>에 수록된 노래로,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잔 스트레서(Jan Struther)의 시에 영국의 전례음악에서 따온 선율을 붙인 곡이다. 동화적인 내용과 분위기를 가진 곡이다.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공을 세웠지만 지금은 홀로 남은 한 기사의 이야기를 노래한다.

16 Love and mercy

2008년 음반인 <New Dawn>의 대표적인 곡으로, 비치 보이스의 전 멤버였던 브라이언 윌슨이 리베라 합창단을 위해 새롭게 작곡한 곡이다. 리베라 합창단은 2007년 12월 2일 이 곡을 제30회 케네디 센터 아너스 시상식에서 부르면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곳에서 리베라 합창단이 부른 노래는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방영되었다.

17 Secret

2008년 음반 <New Dawn>의 수록곡이다. 19세기 프랑스 시인인 아르망 실베스트르의 시 '비밀(Le Secret)'의 내용을 중심으로 리베라 합창단의 지휘자이자 프로듀서인 로버트 프리즈만이 새롭게 가사와 선율을 붙인 곡이다. 성가곡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선율과 리베라 합창단만의 신비로운 목소리가 잘 어우러지고 있다.



18 Stay with me

2004년 음반 <Free>의 수록곡이다. 에스닉한 리듬과 음향을 사용하고 있는 곡으로, 라운지 음악과도 같은 배경 위에 소년 합창단의 천사와 같은 화음이 독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곡이다.

19 Deep peace

2010년 음반 <Peace>의 수록곡이다. 교회합창으로 명성이 높은 존 루터의 1978년 성가를 새롭게 재해석한 노래로, 제목 그대로 평화로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리베라 합창단은 원곡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여기에 덧붙여 리베라만의 감성을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이 노래는 'Gaelic Blessing'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20 How shall I sing that majesty

올해 발매된 음반 <Peace> 중 한 곡으로, '주의 위엄을 어떻게 찬양할까'라는 제목의 노래이다. 리베라 합창단만이 보여주었던 세련된 반주와 화려한 음색의 합창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짐승하는 구조로 발전한 뒤 드러나는 후렴구의 찬란한 광채는 그 어떤 곡보다 화려하게 펼쳐진다.

공연에 자주 다니다 보면 일반적인 관객들의 기대와 실제 현장의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를 무척이나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소년 합창단 공연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만족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오케스트라 공연은 차치하고 성인 합창단과 비교하여도 무척이나 작은 음량과 어린 나이의 구성원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앙상블의 흐트러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한때 주목 받는 행사로 각광을 받았던 유럽 등지의 여러 소년 합창단의 내한공연은 확실히 비중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소년 합창단만이 지니고 있는 매력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간극은 소년 합창단의 공연을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한다.

리베라의 등장은 소년 합창단의 새로운 진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리베라의 방향은 분명하였다. 소년 합창단의 순수성과 크로스오버의 화려함을 접목시키는 것이었다.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혼합은 리베라의 노래 속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놀라운 호응을 얻어내었다. 크로스오버 시장이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소년 합창단에도 이러한 크로스오버적인 측면을 도입한 여러 시도가 있어왔지만, 리베라만큼 두 방향 모두에 있어서 폭넓은 찬사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20명 남짓한 소년들로 구성된 리베라는 기존의 소년합창단의 장점과 인스트루멘탈 뮤직의 장점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합창단이다. 이들은 천상에서 노래하는 듯한 소년 합창단의 순수한 음성과 세련되면서도 현대적인 반주가 절묘하게 혼합된 새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리베라는 다른 소년 합창단들과는 달리 중세음악과 현대음악의 요소를 조화시켜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만들었다. 이제까지의 소년 합창단들이 피아노 반주에 변성기 이전 소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단조로운 편성이었다면, 리베라는 오케스트라와 전자악기가 어우러지는 세련된 반주와 첩단의 녹음기술, 그리고 교회 성가대로 다져진 착실한 기본기를 완벽하게 하나의 노래로 조화시키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리베라는 소년 합창단의 순수성과 크로스오버의 다채로움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가장 뛰어난 사례로 손꼽히게 되었다.

리베라는 소년 합창단 사상 역대 최고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메이저 레이블인 EMI의 간판 아티스트로 대접받고 있다. 리베라의 인기는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06년 12월 발매된 〈Angel Voices〉 앨범이 발매 3년이 가까워지는 현재에도 클래식 종합 차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발매된 리베라의 베스트 앨범 〈Eternal〉 역시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발매된 〈Peace〉 음반도 올 상반기 최대의 기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리베라라는 이름은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리베라의 음악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우리 안에 깊숙이 다가와 있다. 리베라는 바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하여, 〈한니발〉, 〈베니스의 상인〉 등의 영화음악에 참여하였고, 팝 스타인 비옥, 엘튼 존, 그리고 세기의 테너인 파바로티 등과 함께 노래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 영역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플레이 스테이션 2 게임인 〈ICO〉의 배경음악에서도 리베라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포스코, SK 텔레콤, 대한항공 등 20여 개가 넘는 국내 유명 CF 광고 음악에서 리베라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소년 합창단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하면서도 순수한 음색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배경에 깔리는 신비로운 화음과 반주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음악에 있어서 이제까지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을 전해줄 수 있었다.

리베라의 장점은 실제 무대에서 더욱 확장된다. 음반으로 확인했던 리베라의 장점 위에 화려한 조명과 무대 연출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들의 공연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찬탄을 아끼지 않게 만든다. 2005년 첫 번째 내한공연에서 리베라의 압도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평을 이끌어냈고, 이후 리베라는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클래식 아티스트 중 온라인 커뮤니티 최다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첫 내한공연 이후 팬들의 압도적인 요청으로 2년 뒤인 2007년 또 한 번의 내한공연이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공연에서는 더욱 진화된 무대를 선보였다. 2009년 다시 한 번 추진된 내한공연이 아시아 투어가 축소되면서 안타깝게 연기되었지만, 팬들의 끊임없는 요청과 노력으로 드디어 2010년 4월 11일 3년 만의 내한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새 음반 〈Peace〉의 노래를 한국의 팬들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와 동시에 이제까지 이들이 불러왔던 곡 중에서 베스트를 엄선하여 들려줄 예정이다.

리베라의 노래는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어왔던 사람에게, 그리고 대중음악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에게, 그리고 평소 음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 모두에게 호소력을 지니는 드문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연출, 무대를 위해 최적화된 음향 등 현대 무대 예술에서 필수적인 사항을 모두 갖춘 이들의 공연은 그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4월 11일 리베라의 내한 공연에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자 한다.

글 | 김재용 (음악칼럼니스트)



